

■ 연구원 소식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사장 김병문입니다.
2015년의 근심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힘차게 새 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쉽 없이 오늘까지 달려오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6년은 우리 연구원이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간 연구원 안팎에 여러 사연과 다양한 진폭도 있었지만 늘 한치의 두려움 없이 달려왔습니다.

오늘의 실패와 좌절은 내일의 완성을 위한 밑거름이자 지름길이라 생각하며 달려온 연구원 10년의 역사는 분명 여러분의 힘과 마음이 함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내일이라는 연구원의 슬로건을 잊지 않은 것 역시 여러분이 계시기에 가능했습니다.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같은 시선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연구원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묵은 해의 시련과 고난일랑 강물에 흘려보내시고 다가오는 새 해에는 늘 화평한 날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열 살된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에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전해주시길 것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2015년 12월 27일 김 병 문 큰 절

○ 전라감영 재창조위원회 전체회의

- 날 짜 : 2015년 12월 22일(火) 16시 30분
- 장 소 : 한국 전통문화전당 4층 세미나실
- 내 용 : 전라감영 복원사업 관련 각 사업들의 진행상황 및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연구원에서 진행중인 전라감영 및 구 도청사 백서제작사업에 대해 홍성덕 부원장의 중간 발표가 있었습니다.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12월 28일(월) : 주간회의
- 12월 29일(화) : 정읍 학술대회 최종 단행본 납품(정읍시청)
전라감영백서사업 결과보고서 제출(전주시청)

■ 역사속의 오늘

○ 녹두꽃 지던 날 - 1894. 12. 28

: 1894년 갑오년의 겨울은 추웠다. 춥다못해 삭막했다. 특히 호남 땅은 더욱 끔찍 얼어붙었다. 그 지역에서 일어난 농민군 몇 만명의 시신이 굳은 땅 속에서 더디 썩어가고 있었다. 척양척왜 제폭구민 보국안민의 기치를 내걸고 한양으로 진군하려던 그들은 우금치 전투에서 몰살당했고 다른 전투에서도 패퇴했다. 패잔 농민군은 관군의 눈을 피해 뿔뿔이 흩어졌다.

녹두장군 전봉준도 그 중의 하나였다. 5척 단구로서 남의 눈에 떨 체형은 아니었지만 그 눈빛만은 눈에 띄게 형형했던 그는 눈앞에서 죽어간 동지들 생각에 가슴을 치면서 살을 에는 듯한 겨울바람을 헤치며 전라도 순창 피노리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곳에는 그와 함께 봉기에 참여했던 믿을만한 부하가 은신 중이었다. 남하하는 길목에 경천이라 불리는 냇물을 건널 때 전봉준은 일순 긴장한다. 언젠가 들은 예언에서 그는 "경천을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천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고 관군의 잠복도 없었다.

그는 무사히 부하를 만난다. 몇 달 전만해도 함께 싸운 동향의 동지. 그는 주막집으로 전봉준을 안내하고 모처럼 구들장을 지고 더운밥을 먹은 녹두장군은 긴장을 풀고 다리를 뻗지만 정작 그가 믿었던 부하는 마음 속이 복잡했다. 이미 틀어진 일, 막대한 현상금과 포상이 내걸린 전봉준을 관군에 넘긴다면 팔자를 고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생사를 같이하며 죽창을 함께 맺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외침에 자신도 공감했던 지도자를 버린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입술을 깨문다. 속으로는 아마 이리 이야기했을 터... '장군 미안치만 나는 살아야겠소.' 그의 이름은 '김경천'이었다.

그는 인근에 사는 전주 감영의 퇴역 장교인 한신현에게 전봉준의 출현을 밀고했고 한신현은 동네 사람들을 동원하여 전봉준을 급습한다. 김새를 찬 전봉준은 주막 담장을 넘어 도망가려 했지만 장정들이 휘두른 몽둥이에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잡히고 만다. 녹두꽃이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1894년 양력 12월 28일이었다.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터진 채 그는 서울로 압송된다.

..... 녹두꽃 자지러지게 피면 돌아올거나
울며 울지 않으며 가는
우리 봉준이
풀잎들이 북향하여 일제히 성긴 머리를 푸네
그 누가 알기나 하리
처음에는 우리 모두 이름 없는 들꽃이었더니
들꽃 중에서도 저 하늘 보기 두려워
그늘 깊은 땅 속으로 젖은 발 내리고 싶어하던 잔뿌리였더니

그대 떠나기 전에 우리는
목 싹 그대의 칼집도 찾아주지 못하고
조선 호랑이처럼 모여 울어주지도 못하였네
그보다도 더운 국밥 한 그릇 말아주지 못하였네

(안도현 시 - 서울로 가는 전봉준 중에서)

전봉준 체포에 공이 큰 한신현은 군수 감투를 썼고, 담장을 넘는 전봉준의 다리를 부러뜨렸던 동네 청년들에게도 두둑한 상금이 내려졌다. 하지만 정작 전봉준을 처음 밀고했던 김경천은 이 마을 저 마을 떠돌다가 굶어죽었다고 전한다.

녹두장군이 1894년 12월 28일 외세에는 허약했으나 안으로는 잔인했던 관의 손에 떨어졌다. 배반의 파랑새가 녹두밭에 앉았고 녹두꽃은 떨어져 솔한 청포장수들이 울면서 흠어졌다. 탐관오리에 대해 저항하여 일어섰던, 수많은 백의의 농민들의 지도자가 되어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전봉준은 오늘 다리가 부러진 채 포로가 됐다.

그가 동지들과 기세를 올릴 때 부른 노래들은 오늘 들어도 어색하지 않다.

“갑오(甲午)세 가보세. 을미(乙未)적 을미적 병신(丙申) 되면 못가리.”

가야할 때 가지 못하고 을미적거리면 병신밖에는 될 것이 없다는 것은 1894년 오늘이 나 2015년 지금이나 매 한가지다.

○ 최저임금제 실시 - 1963. 1. 1

: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 한도의 임금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가진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를 준수하여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라는 것이 사회적 정의이다.

최저임금제는 19세기 산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노동하는 작업장의 확산을 막는 방법으로 처음 제시되었다.

1894년 뉴질랜드의 강제중재법과 1896년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의 공장법에서 시작되어 서양 자본주의 국가로 파급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지만, 당시 경제 상황을 핑계로 언감생심이었다.

더 말해 무엇하랴.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치며 불덩이로 변해간 이의 죽음 앞에서도 꿈쩍하지 않던 나라였으니...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세계의 이목이 코리아로 몰리자 꿈쩍하지 않던 나라가 여러 가지 변화를 보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제였다. 선진국으로 향하는 국격에 맞추자니 결국 도입이 불가피해져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당시 최저임금은 시급 462원이었다. 2015년 최저임금이 시급 5,580원이니 12배 차이. 27년동안 12배 올랐으니 더할 나위없이 올랐다고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 임금을 지급하는 “갑”들의 주장이다.

최저임금제는 근본적으로 노동자의 빈곤퇴치와 소득 불평등 완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적정 수준의 임금은 경기활성화의 선순환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을”인 노동자들의 주장이지만, “갑”들은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올리면 기업이 고용을 축소하고 실업자가 양산되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영세업자들은 도산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여하튼... 2016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이다. 대망의 6,000원 시대를 열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일 경우 1,260,270원이다. 적다고 타박하지 말자. 2015년 청년유니온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조차도 못 받는 임금노동자가 20%에 이른다.